

# 일자리 부족 시대 대안...노사민정 대타협 꼭 완성시켜야

##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

〈3〉 광주미래 가를 시험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적정 임금은 국내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 적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주 40시간+4시간 특근)이다.

나머지 원하청 개선, 노사경영참여 등을 포함해 4대 원칙을 합의하는데 민선 6기 4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비로소 지난 3월 7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면서 광주시는 국내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들어갔다. 국내·외 120여개 기업 대상으로 123만평 규모로 빛그린국가산단 조성, R&D 예산 3030억원 확보, 최대 10% 투자 보조금 지원, 노사민정 대타협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선진 임금 체계 도입, 유연한 인력 운영,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구축 등 빛그린산단 입주기업의 노사상생 모델을 내놓고, 빛그린 산단 내 기업투자유형을 완성차 및 부품기업 등, 직접 생산 및 위·수탁 방식, 단독·공동·합작투자 등으로 정하는 등 완성차 공장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계 굴지의 자동차기업인 현대자동차(주)가 지난 6월 1일 광주시 완성차 공장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은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였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7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지역노동계가 불만을 토로, 노사민정 대타협에서 이탈하면서 4개월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차 개발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은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거둬들이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4년 노력 끝 4대 원칙 합의

지역 노동계 불참 선언 아쉬워

정부·정치권 등 전국서 주목

市 “1대 주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려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현대차 합작투자자로 설립되는 공장의 초임 연봉이 2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협상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주 44시간 3000만~3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주거·교육·의료 등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실질 소득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노동계의 불참 역시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광주시와 지역노동계가 파열음을 내는 사이 광주 노사민정 대타협을 받고 22년만에 국내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선 6기부터 7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광주는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다루어진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당분간 대기업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의 핵심 열쇠를 투명성에 입각한 소통이라고 보고, 시의회, 노동계, 지역사회와 함께 투자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 과정에 시의회 및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및 친환경차 생산가능성 확보 등 추가적인 노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설 법인 설립 및 공장 운영과 관련 1대 주주로서 노사상생 및 투명경영을 약속하고 빛그린 산단 내 주요 사항 논의체제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동계의 충분한 참여를 확보할 계획이다.



2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도 낮고 근로시간도 긴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초임 임금에 대한 하한선을 설정하고, 합작법인 설립 및 공장 운영 전에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위탁 차종 및 규모, 수익 구조 등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함께 투자하는 합작법인 및 공장의 수익구조는 단순하며 지역민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위탁 생산에 따른 수익으로 차입금을 일부 갚아나

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 규모가 늘어난다면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수익이 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각각 자기자본금 2800억원 중 590억원(21%)과 530억원(19%)을 투자해 빛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19만평) 부지에 완성차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위탁생산 차종은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위탁 규모는 연간 최대 10만대다. 자기자본금 외에 차입금 42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투입된다. <끝> /윤현석 기자 chad01@

## 선거제도 개편 급물살 탄다

민중, 개헌과 별개 추진 가닥

3당 대표 방북때 개편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헌법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야 선거제도 개편은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개헌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현실적으로 개헌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는 별개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별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 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걸음 나아가 당내에서는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적극 나서더라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정해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중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 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문대통령 “국군의 날은 병사들이 주인공...고충 생각해야”

행사 간소화 주장 반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열렸던 국군의 날 행사가 시가지 페이로드 생략 등 간소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국군의 날 행사가 바뀐 것은 평화 기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병사들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영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

임에서 “과거 국군의 날 행사를 하자면 병사들은 4월 봄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여름철이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며 “기수단과 사병들이 발을 맞춰서 열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전사의 경우도 과거 여의도 광장에 낙하산 점프를 했는데 TV 화면에는 사뿐히 낙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호된 훈련을 하고, 크고 작은 문

제가 있었다”며 “국군의 날은 병사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무기 체계 등을 선보이는 시가지 페이로드나 열병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장병들의 환호 속에 가수 사이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 평일인 점을 감안해 다수 국민이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처음으로 진행됐다.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열병식을 생략한 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강한 군대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될 수 없다”며 “나라를 생각하고 동포를 생각하는 병사들의 애국심과 사기로부터 강군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같은 행사가 병사들에게서 그런 열정을 북돋우는 데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항공 특가 77,000원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매주 3회 정기편 운항(화(3박4일) / 금, 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나가노 북알프스(마츠모토) 직항 전세기**

10월 2일(화) ~ 10월 20일(토)

- 10월 2, 9, 16(화 출발) 북알프스, 가미코지 1,198,000원-
- 3박4일(토 출발)[실속] 998,000원- [폭격] 1,098,000원-
- 4박5일 골프(화 출발) 99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99,000원- ◆ [특급] 7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오전출발
- [실속(세미패키지)] 오사카, 나라, 교토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899,000원-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골드]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599,000원- /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799,000원- / 5일 969,000원-

**무안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추석 연휴] 무안 ↔ 돛토리 직항 전세기**

9월 23일(일) ~ 9월 27일(목), 총 5회 운항

- 9/23(일), 24(월)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9/25(화), 26(수), 27(목) 2박3일, 3박4일 6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9월, 10월(매주 월, 월, 목, 금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편,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편, 야류 2박3일 629,000원-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현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인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교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제외상품: 1인원, 국내선항공 5인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원 여행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승선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명세서,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대관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